崔鍾琓 科技処長官, 当会議 会長団과 面談

1月24日 14시 科技処 長官室에서 当会議 業務報告와 79年度 事業計劃 브리핑을 겸한 新年懇談会가 있었다.

全国民 科学化 運動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崔長官은 原産의 設立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어려운 여건속에 처하면서도 民間機構로서 맡은바 일을 다한데 대하여 会長団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実務責任을 맡은 李大熙 常任理事의 헌신적 노력은 높이 評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原産은 先進国原産, 특히 美国이나 日本의 原産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보다 育成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政府나 企業体 個個에서 하기 어려운 国際間의 協力과 政府와 企業体間의 교량으로서의 그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은 対談의 주요내용이다.

○崔長官 : 제가 一線行政만 担当하다가 왔으니 外廓団体에서 적극 協力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会長 : 原産은 国内에서 보다도 주로 外国의 原産을 비롯한 団体와의 協力으로 많은 일을 推進해 왔읍니다. 예를 들면 웨스팅하우스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등의 세계적인 企業体의 産業技術 情報等도 政府싸이드에서는 어려운 점이었으나 日本原産등과의 協力으로 비교적 쉽게 각국,

의 자료를 供給 받고 있읍니다.

長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原産을 키워주십시오

○崔長官 : 科技処보다는 会長団에서 좀 더 発展시켜 주셔야 겠읍니다.

우리나라 原子力은 民間活動이 全然 없다시피 하는데 美国이나 日本은 民間団体가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하더군요, 미국, 일본과 같이 좀더 構想을 크게 해서 政府보다는 民間主導型으로 原子力을 発展시켜주어야 겠읍니다. 따라서 時急한 問題인 機資材 国産化計劃을 具体的으로 세워서, 이를 推進하는데 産業会議가 주된 역활을 해야겠지요 또한 N.D.T의 문제도 큰 문제이니 이것도 産業会議가 맡아서 발전시켜 주어야 겠읍니다.

나머지 문제는 専門家들이니 여러분들이 더욱 研究하시고 우선은 機資材 国産化에 対한 目標年度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다시 자리를 같이 하고 싶고, 비파괴 검사에 관한 訓練과 제반 規定等에 対하여 具体的案과 이를 推進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李局長께서 바람직한 育成方案을 提示하여 주시고, 原子力開発은 民間싸이드의 積極的인 노력이 必要하다고 보기 때문에 育成方案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협의를 하겠읍니다.

辛基祚 副会長：

앞으로의 原子力開発의 重要性으로 보아 사실은 原子力의 各 企業体와 関係長官님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말씀을 나눌 必要를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主務部処가 달라서 애로점도 많고 .....

崔長官：所管部処 問題는 一長 一短이 있겠지요, 산업계와의 대화의 자리는 빠를수록 좋을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白局長(원자력)：그동안 産業会議가 많은 苦生을 해왔읍니다만 이제부터 産業会議가 本格的으로 일 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崔長官：〃참말로 헌신적으로 일해 왔구나〃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회장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기자재 국산화와 一部国産機資材의 輸出可能性도 연구할 것이며 RI훈련 Level Ⅲ教育등 技術者訓練 支援等 자상한 것까지 일일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

参 席 者

崔鍾兢 科技処長官

白英鶴 科技処原子力 局長

朱昌均 会長 (日新製鋼社長)

辛基祚 副会長 (KNE 首席 副社長)

朴益洙 副会長 (前 原子力 常任委員)

李大熙 常任理事